



나는 고발한다

니콜라스 할라스 지음

19세기 '드레퓔스 사건' 재조명

'드레퓔스 사건'은 19세기 프랑스 사회를 지배하던 '국가'라는 대의의 이념에 대해 개인의 인권과 진실을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평범한 군인이었던 드레퓔스가 간첩으로 지목된다. 그는 비공개 군사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외딴섬으로 유배된다.

슬로바키아 출생으로 여러 신문의 외국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니콜라스 할라스가 펴낸 '나는 고발한다'는 19세기 말 드레퓔스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서술한 책이다. 드레퓔스를 둘러싸고 재심을 요구하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된다. 대문호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합니다'를 공개 지면에 실는다. "진실은 지하에 묻혀서도 자리잡는다. 무서운 폭박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허위를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지식인들의 투쟁은 결국 유죄판결이 오판이며 무효임을 이끌어낸다.

〈한길사·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유령의 노래를 들어라

김근 지음

漢代 문학 통해 현재 들춰보기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옛 역사를 토대로 오늘을 비추이기 위해서다. 이런 거울을 귀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존재를 비추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중국 한 대(漢代)의 문학작품을 토대로 오늘의 우리의 실정을 반추하는 인문서가 눈길을 끈다.

김근 서경대 중국 문화학 전공 교수의 '유령의 노래를 들어라'는 한대의 악부시(시문학)를 통해 오늘을 들여다본다. 한대는 중국의 골격이 갖춰진 시기로 이때의 문학작품은 당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텍스트들이다.

지은이는 악부시를 분석하면서 옛날 그들의 고뇌가 오늘날 우리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 당대의 사람들도 전쟁과 죽음 등과 같은 문제로 번민했으며 정부의 책임회피 속에서 각자도생의 고민을 했다는 것이다. 〈소나무·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산촌자본주의, 가능한 대안인가? 유토피아인가?

숲에서 자본주의를 꺼낸다

모타니 고스케 외 지음



대부분 직장인들은 쓸 돈이 부족하다. 나를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돈에 쫓달린다. 어떤 이들은 월급을 많이 받기도 한다. 그렇다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아니다. 생활비 등 각종 공과금으로 지출하는 돈은 날로 늘어난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을 더 벌어야 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해"라는 생각이 자리한다. 일 중독증에 빠지는 이유다. 집은 잠만 자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식사를 준비하기가 귀찮아 밖에서 해결하거나, 외식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노동'은 돈으로 해결한다.

과연 인간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돈일까? 물과 식량 같은 생활필수품일까? 자급의 자본주의 중심은 '돈'이다.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머니 자본주의'는 많은 병폐를 안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그는 '머니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산촌자본주의는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뿐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사진은 장성 축령산(왼쪽)과 화순 백야산. 〈광주일보 DB자료〉

이 아닌 돈에 의존하지 않는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에너지 자원과 식량 등을 조달할 수 있고 비상시에 백업시스템으로 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대안 자본주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촌자본주의(里山資本主義)', 즉 "잠자고 있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里山'은 마을 숲, 마을 산을 의미한다. 일본 정책투자은행 특임고문을 맡고 있는 모타니 고스케가 펴낸 '숲에서 자본주의를 꺼낸다'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을 꿈꾸는 저자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경제연구소 등에서 근무했던 엘리트다. 책은 2014년 신서대상 1위에 올랐고 도쿄대 생이 가장 많이 읽는 책으로

선정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사실, 머니자본주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공감했던 사건이 2008년에 발생했다. 미국 증권회사 리먼브라더스 파산(리먼 쇼크)은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다. '사기 같은 경제의 최후'라는 표현에서 보듯 당시의 여파는 많은 이들에게 풍요롭게 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里山'은 마을 숲, 마을 산을 의미한다. 일본 정책투자은행 특임고문을 맡고 있는 모타니 고스케가 펴낸 '숲에서 자본주의를 꺼낸다'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을 꿈꾸는 저자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경제연구소 등에서 근무했던 엘리트다. 책은 2014년 신서대상 1위에 올랐고 도쿄대 생이 가장 많이 읽는 책으로

산촌자본주의는 돈이 부족해져도 물과 식량과 연료를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산에서 연료를 조달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저자는 관리와 활용이 용이한 목재산에 눈을 돌리라고 조언한다. 몇 천 톤



이나 되는 목재가 폐기물로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직시하라는 것이다. 지역의 숲을 활용하는 제재업의 활성화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이다. 일례로 목재폐기물을 압축한 펠릿(pellet)은 난방과 취사 에너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친환경 스토브도 만들 수 있는 데다, 밥도 전기밥솥에 지을 때보다 훨씬 맛있다고 한다.

목재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산업은 이미 일본과 오스트리아에서 실행되고 있다. 난방의 자급자족뿐 아니라 남은 에너지(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 만든 전기 등)는 팔기도 하고 목재폐기물로 건축재를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모두 시골로 돌아가서 농사짓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저자는 이전의 농촌처럼 자급자족의 생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숲이나 인간관계 같은 자산에 최신 기술을 더해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즉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주위에서 찾자는 의미다. "산촌자본주의의 '하나의 완성체', 그것은 그저 단순히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자원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철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고 강한 것'을 좋아하던 20세기의 '마초적인 경제' 형태에도 의문을 던지는, 가치관의 전환까지 내포하고 있다."

〈동아시아·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배제, 무시, 물화... 세 키워드로 바라본 한국의 민낯



배제, 무시, 물화

김원식 지음

양극화의 심화, 무시의 일상화, 시장화되는 삶...

2015년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향간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온다. 말 그대로 '지옥(hell) 같은 한국'이란 뜻이다. 한때는 향간의 기적적 자라던 한국 사회가 어쩌다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을까?

빈부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등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편적 합의가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와 갈등을 바라보는 공통의 '틀'이 부재한 때문이다.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좋은 삶이 왜 불가능한지를 탐색한 책이 출간되었다.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원식 박사가 펴낸 '배제, 무시, 물화'는 세 키워드로 보는 한국사회 진단 보고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른바 '갈등사회'라고 부를 만큼 수많은 갈등이 노정되어 있다. 개별적인 사회갈등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갈등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사회철학적 시선이 거의 없었던 탓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세 가지 틀은 명쾌하다. 먼저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관계로부터 '배제'된 실업자, 소수자들을 고려하는 적극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운동이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인정-무시'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화되는 삶, 증대되는 환경 문제 등 경제적 배제나 문화적 무시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없는 삶의 '물화(物化)'와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관점이다.

〈사월의 책·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전문의가 말하는 5대 암 극복 비결



5대암과 해독특강

MBN 엄지의 제왕 제작팀 지음

MBN의 건강 프로그램 '엄지의 제왕'에 소개됐던 대한민국 5대 '암'과 '해독' 명의 특강 내용을 담은 '5대 암과 해독 특강'은 다양한 암을 극복하는 비결을 소개한다.

미국 암 전문 병원 MD 앤더슨의 김의신 박사, 국립암센터 5대 암 명의, 피해독 전문 한의사 선재광 원장, 효소 해독 전문

박찬영 원장까지 대한민국 5대 암 전문의와 해독 명의의 강의를 책에 담았다.

'암 특강' 편에서는 MD앤더슨의 김의신 박사가 가장 최신의 암 치료 트렌드와 올바른 암 치료의 방법,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준다. 그는 암을 국소적인 병이 아닌 전신병으로 규정하고 환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따라야 할 '암 환자를 위한 8계명'을 제시한다.

'암 특강' 편 2안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 대한민국 5대 암 치료 해법을 소개한다. 박찬영 원장은 4주 해독 방사선 프로젝트의 결과와 빠르게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소 해독의 방법을 소개한다. 〈다온북스·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성</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성</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남성</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층 70m 허니문형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신제품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대산프리모가발